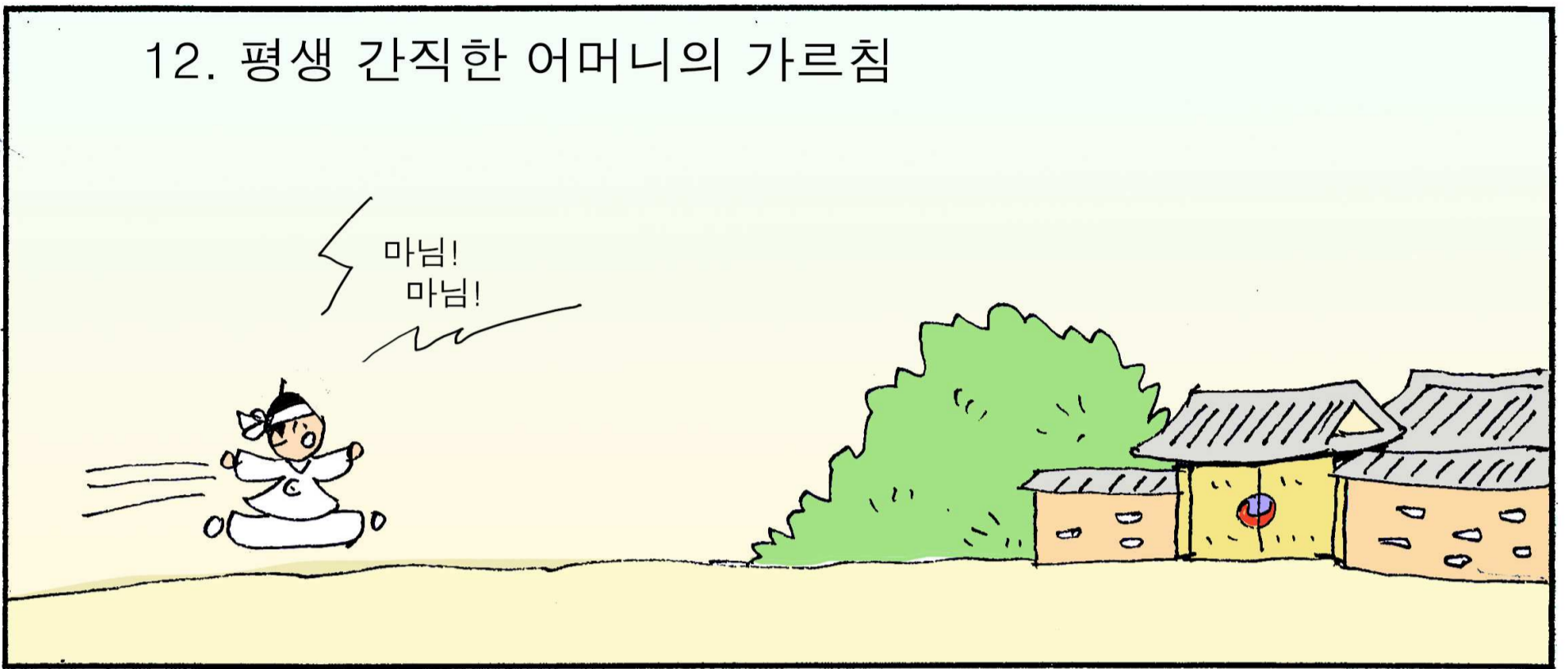


12. 평생 간직한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냐, 먼길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갔던 일은
어찌 되었느냐?

예, 어머니가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합격
하였습니다.



네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당연한 결과겠지.



네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어머니가
의심치 않았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너의 성품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옳고 바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 네 뜻이 너무 높고 깨끗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한 세상사람들이
너의 맑음을 겁내어 너를
받아들이지 못할게야.

그러면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벼슬이 높이 올라감을 바라지 마라!



고을 하나 정도 다스리는
현감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러면 난세에도 어려움 없이
지나 갈 수 있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퇴계는 늘그막까지 어머니의 이 말을 잊지 않고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